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356
----------	------

발의연월일 : 2024. 8. 29.

발 의 자 : 이연희 · 김동아 · 윤준병
김한규 · 김준혁 · 이강일
김남근 · 정일영 · 홍기원
서영교 · 임미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대학을 시작으로 텔레그램에서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편집한 허위 영상물을 생성·유포하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이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로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음.

현행법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내용을 “편집물등”으로 규정하고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딥페이크 기술 등을 활용하여 “편집물등”을 제작하는 것 뿐만 아니라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가 급증하고 있고, 관련 처벌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피해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편집물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규

정을 신설하고, 상습적인 경우 형을 가중하도록 하며, 촬영물 또는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4조의2제1항, 제4항, 제5항 및 제14조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의3의 제목 중 “촬영물”을 “촬영물과 편집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편집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① <u>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① <u>사람</u> ----- ----- ----- ----- ----- ----- -----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⑤ ----- 제4항 ----- ----- -----.
제14조의3(<u>촬영물</u> 등을 이용한	제14조의3(<u>촬영물과 편집물</u> 등을

<p>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u>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u>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p>②·③ (생략)</p>	<p>이용한 협박·강요) ① ----- ----- ----- <u>촬영물 또는 복제물</u> <u>(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u>, <u>편집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u>-----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	--